

# “젠슨황, HBM4 공급 6개월 당겨달라 요청… 협업으로 해결”

(엔비디아 CEO)

## 최태원 회장, SK AI서밋 연설

“황CEO, 뺏속까지 엔지니어인데 한국인 같이 일정 앞당기길 위해”

“엔비디아·TSMC·MS 등과 협업 기술혁신, 리스크 해결 돌파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과노정 SK하이닉스 사장에 물었더니 ‘한 번 해보겠다’ 하더군요. 엔비디아, TSMC와의 신뢰와 공고한 협력이 바탕이 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 요청했다”며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등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이 기술 혁신과 리스크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황 CEO와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황 CEO는 뺏속까지 엔지니어인데 마치 한국인 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며 “빨리빨리 일정을 앞당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계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들을 언급했다.

그는 “AI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병목현상(Bottleneck)이 존재한다”며, ▲투자 회수를 위한 ‘대표 사용 사례’(Killer Use Case)와 수익 모델의 부재 ▲AI 가속기 및 반도체 공급 부족 ▲첨단 제조 공정 설비(Capacity) 부족 ▲AI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문제 등 5가지 병목현상을 꼽았다.

최 회장은 “SK는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서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드문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와 파트너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묶어 AI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더 나은 AI가 우리 생활에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글로벌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웨이저자 TSMC CEO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SK하이닉스

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데이비드 패터슨 UC버클리대 교수와의 영상 대담에서 SK와의 파트너십과 HBM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의 협력으로 적은 메모리를 통해 정밀하고 구조화된 연산을 가능하게 해,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HBM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BM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중인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GPU 시장 규모는 197억 1166만 달러였으나, 2028년에는 334

억 6393만 달러로 연평균 7.85% 성장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53%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을 크게 앞서고 있다.

웨이저자 TSMC CEO도 SK AI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AI 생태계 전반에서 긴밀하고 견고한 협력을 통해 AI의 미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이며 SK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좋은 집을 설계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제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SK는 엔비디아와 함께 TSMC와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 AI 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 AI 서밋’은 AI 분야 민간, 정부, 학계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 및 AI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AI 생태계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는 미래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포트폴리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오늘 美 대선’ 초접전… 경합주 7곳이 ‘운명’ 가른다

## 2024 미국의 선택

선거인단 538명 과반 확보면 당선 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 등 경합주

해리스 ‘블루월’ 가져갈 가능성 커 트럼프, 일조량 많은 ‘선벨트’ 우위 ‘대선의 키’ 펜실베이니아 안겟속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대선 당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50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 당선이다.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경합주 7곳의 결과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합주 7곳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이다. 이 중 선거인단 19명이 걸려 있는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대선의 키를 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대선은 특정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다. 경합주로 보면 해리스 후보는 ‘블



루월’(Blue Wall·파란 장벽)이라 불리는 펜실베이니아(19명), 미시간(15명), 위스콘신(10명)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일조량이 많은 ‘선벨트’(Sun Belt)에 속한 남부의 조지아(16명)와 노스캐롤라이나(16명), 서부의 애리조나(11명)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 후보로서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3개 주를 모두 가져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블루월’로 불리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트럼프 후보는 예상대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가고, 블루월 중 가장 취약한 펜실베이니아를 공략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7개 경합주 중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 유권자를 겨냥해왔다.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여전히 안겟속이다. 펜실베이니아는 두 후보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과 시간을 집중해왔다.

두 후보는 대선 전날인 4일에도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마지막 유세 대결을 벌였다.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이어 주(州)내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콘서트를 겸한 유세로 표심을 공략하고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필라델피아 유세에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도 합류해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펜실베이니아 레딩과 피츠버그에서 유세를 벌이며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합주에서 예상을 뒤엎고 어느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두 후보의 지지를 격차가 7곳 모두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다. 경우에 따라 한 후보가 7곳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원승일 기자 won@

## >> 1면 ‘장비구니 담기 무섭다…’서 계속

### 유아동복 값 20% ↑ 아동화는 16% 상승

비대면 생활을 확대시켰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떨어지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고 있다. 특히 유아동복과 아동화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14.8% 상승했다. 5만원하던 유아동복이 5만7000원으로 오른 셈이다. 남자의류는 15.3%, 여자의류는 12.2% 상승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옷값 부담이 더 컸다. 유아동복은 2021년 8월 98.61에서 118.19로 19.9% 올랐다. 아동화는 같은 기간 16.2% 상승했다. 총 의류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그 외에도 장갑은 2021년 8월 100.28에서 9월 147.55로 47.1%, 실내화는 같은 기간 23.4% 올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식주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식료·의류 가격이 OECD 평균 가격으로 낮아진다면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적으로 약 7%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